

화요일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령인구 연령기준·순출국자 수 등의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 4,191명으로 추산했다. 2013년 27만 1,404명 보다 줄었지만 같은 기간 청소년 전체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3.9%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광주서도 매년 1,400명 떠나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중단율은 2018년 0.9%로 5만 2,539명, 2019년 1.0%로 5만 2,261명, 2020년 0.6%로 3만 2,027명이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기 유학이 줄고 비대면 수업의 확대와 학교부적응에 따른 자퇴나 퇴학도 감소해 학교 중단율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였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의 학교중단 청소년은 15만 4,857명으로 연 평균 5만 1,619명이 발생해 1.6%의 비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연 평균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의 학교중단율은 전국에 비해 낮으나 2018년 0.7%로 1,390명, 2019년 0.8%로 1,388명, 2020년 0.5%로 887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학교중단 청소년은 4,183명이며, 연 평균 1,394명으로 0.7%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한다면 광주시에 서도 연 평균 1,4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학교중단율과 학교 밖 청소년 발생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광주시의 학교중단 현황은 초등학교 458명(0.5%), 중학교 189명(0.4%), 고등학교 741명(1.5%)으로 1,388명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특성학교 290명(4.1%), 일반계고 425명(1.1%), 자율고 17명(0.8%), 특목고 9명(0.6%) 순이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 다니는 것이 의미 없어서(36.6%), 심리적 어려움(29.3%), 학교규칙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24.2%),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공부(23.6%),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이 있어서(19.4%), 친구관계 좋지 않음(14.0%), 아무것도 하기 싫음(12.4%), 학교 수업 따라가기 어려움(10.2%), 선생님과 갈등(6.0%) 등이었다. 결국 학교의 위기는 공교육이 보편성 추구와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그 획일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로부터 출발한다.

또 특이한 점은 2018년 광주광역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이 18.6%였는데 2021년은 29.3%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

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및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우울·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정서조절능력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자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도움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지원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후 ‘3개월 이상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음’에 응답한 청소년들이 2018년 7.0%에서 2021년은 18.1%로 11.1%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지만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은 장기적인 가정방문 상담과 부모상담으로 가족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1명의 친구도 없다는 청소년들이 18.1%나 됐다. 혼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제한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정도를 묻는 답변에서 ‘변화가 없다’가 48.4%나 됐다.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에게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일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액티브한 시니어 삶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이들이 많고, 스스로도 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더 이상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 보험, 상조 등 노후 대비를 하려는 경향도 생겨나 재테크 공부도 선호하는 편이다.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운동과 취미를 즐기려 한다. 그렇지만 액티브 시니어로 살고 싶어도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 첫째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는 사고를 가지려 노력하라. 둘째는 일과 여가 활동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몸도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운동이나 독서, 사교 모임도 병행하면 낫다. 세 번째는 10년 후를 위해 충분히 배워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성찰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과감히 실행하면 어떨까. 이러한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누구나 젊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며 여유로운 시간, 높은 능력, 고도의 경험을 다 가진 장년 세대에기에 용기만 가진다면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된 빛고을50+센터는 시민 장년층이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는 올해 몇 가지 핵심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 그중 최우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생학교를 개강. 자아 성찰을 통해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비전을 가져 보게 하는 생애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할 맞춤형 일자리 소개, 재무, 건강, 여가에 대한 내실 있는 진단과 준비 과정의 아카데미도 열어 추진하고 있다. 은퇴 직전의 시민 대상 사회참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해 퇴직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여기에 50+세대로서 자신감 넘치는 인생 2막의 자세와 옷차림, 워킹 등 이미지 메이킹 교육과 스마트폰 등 첨단 통신장비와 친해지기,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알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 유도 교육, 음식적이나 커피숍 키오스크 실습 등을 제공한다. 이는 곧 100세 시대 장년층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광주시민회에 지대한 노력이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한때 글이 써지지 않아 붓을 쥐고 유랑을 했다. 어느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주인 노인이 새벽같이 이른 아침에 큰 쇠 절구를 열심히 갈고 있어 여쭙더니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바늘을 만들기 위해 갈고 있다’고 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다시 붓을 잡아 당대 최고 문필가가 됐다.

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모든 것은 수습, 수백 번 고쳐 쓰는 것이다. 노력은 수단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어느 세월이 해 났니까’라는 것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답은 지금부터 실행하면 된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이태백이 ‘때를 만났을 때 원 없이 즐겨라’라고 했듯 내 인생에 내가 박수 받으며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황금기가 인생 2막이다.

인생 2막은 가을 인생이라고도 한다. 가을 남자의 약기 색소폰을 연주하는, 가을 여자의 약기 피리를 연주하는 독무대 또는 부부의 장년 시민을 기대한다. 100세시대 시민의 허리인 장년층이 보유한 다양한 잠재역량을 민선8기 새로운 광주시대에 발 맞춰 ‘사회공헌형’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한다.

빛고을50+센터는 광주시 장년층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액티브 시니어, ‘명품 장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설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최적안 마련을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뤄진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무등산 난개발 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리모델링·철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호텔 건축물과 부지를 놓고 애초 제시된 시민정원 조성과 생태 시민호텔 건립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가 이번엔 호텔 공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한 아시아아트플라자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해 주목된다. 예술인 창작 공간인 아트플라자가 공유화 주요 목적과는 괴리가 있고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과 다소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공유화와 창작 공간의 역할 등의 조율 및 재조정 작업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민·관·정 위원회는 공유화 3대 원칙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

이었다.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무등산 권 생태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중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 3대 원칙을 정했다. 이들 원칙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 시민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호텔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생태 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호텔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으로 개발보다는 원형 그대로의 보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관광 자원화를 원하는 시민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주변 지산 유원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또는 무등산과 시가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티타워 건립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민 혈세 369억원을 들여 호텔을 매입한 만큼 시민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활성화 전기 솔라시도, 정부 지원 필수다

전남도의 오랜 현안인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지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 등 여건이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전남도의 해법이 주목된다.

솔라시도 3개 사업지구 중 구성지구는 최근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최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시설 구축을 골자로 한 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뤄졌다. 전남도의 민선 8기 1호 투자협약이며 기업도시 단일 사업비로는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은다. 63층 골프장이 조성중인 삼호지구도 2019년 개장한 사우링스 영암(45홀)에 이어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삼포지구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튜닝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밸리 조성사업이 핵심으로 진행중이다. 솔라시도 개발사업은 특히 구성지구에 2030년까지 추진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오랜 부진을 딛고 각 지구

마다 특화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구성지구는 당장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선도 주택단지(600세대)가 정부의 1가구 2주택 등과 세 정책이 발목잡혀 1,600건에 이르는 사전 청약이 물거품 될 처지다. 삼포지구는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고, 삼호지구도 개발사업이 모두 골프장 관련 이어서 대규모 투자로 골프장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이던 1998년 J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시작을 알린 솔라시도는 참여 정부 때인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2010년 실시계획 수립 이후 자금 지원이 실패 등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왔다. 2기 김영록 체제 시작과 함께 이뤄진 대규모 투자유치는 가다서다를 반복해 온 솔라시도 활성화의 새로운 단초와 다른 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세종 행복도시 등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인 정부의 통근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복합쇼핑몰, 상생·화합 기반으로 건립돼야

기지수첩



황승현

경제부 기자

하지만 광주 시민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을 언제까지 반대할 순 없다. 지자체·기업·시민이 의견을 모아 상생·화합을 통한 동반 성장을 이뤄야 할 시기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몰 동부산점은 입점·유통 수수료 인상 자체 등을 통해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38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동반 성장을 도모했다. 또한 대전 신세계 아트 사이언스도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려 관광을 활성화시켰고 지역의 오래된 맛집을 배치해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최근 광주복합쇼핑몰 건립 이슈로 지역이 떠들썩하다. 현대백화점의 신포터으로 유통 ‘빅3’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48만7,364명 중 39.6% 수준인 19만 2,85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11만4,143개의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7,138개(85.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2015년과 2019년에는 각각 신세계와 롯데가 광천동과 삼암동 일대에 특급호텔 및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 등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과거 지역 내 백화점도 인근 전통시장과의 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동구 대인시장·전자의 거리와 상생협력을 맺고 노후 상점을 고쳐주는 리모델링 봉사, 상인 대상 서비스 및 판매기법 교육, 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또한 서구 서부시장과 양동시장에 선공기 지원, 주차장 운영 지원, 문화·서비스 아카데미 개최 등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대형쇼핑몰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위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안을 찾아 상생·화합을 기조로 한 복합쇼핑몰을 건립해야 한다.

기고



서은진

빛고을50+센터 팀장

과거보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할 나이가 됐다고 무기력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 건강을 지키며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꾸준하게 활동적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도 새로운 일, 흥미로운 취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는)액티브한 시니어일까’라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자면 요즘 평균 퇴직 연령은 49.7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 50·60세대라면 이미 퇴직을 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5060 나이가 다가 주로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취미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는 이도 있고, 젊었을 때보고 싶었던 것에 대한 도전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젊어질 개념은 ‘액티브 시니어’다.

활동적인 장년을 일컫는 신조어인 액티브 시니어는 미국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말로 장년층은 건강과 경제력, 여유로운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하며 도전을 즐겨야 할 세대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이 건강해짐에 따라 100세 시대라고 말할 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수준도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